

## 설악(雪嶽)의 산울림

*The rumbling of Mt. Seorak*



글 | 洪鍾震  
(Hong, Chong Jin)

농어업토목기술사  
한국농촌개발연구소 이사, 수필가

E-mail : hong37@empal.com

한가위를 앞두고 40여년을 그리던 설악산 대청봉을 다녀왔다. 태백산맥 중 가장 높다는 대청봉까지 오르는 데는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단단한 각오가 필요했다. 청옥 빛의 맑은 하늘이 구름 사이로 언뜻언뜻 보였던 9월 24일 아침이었다. 농촌개발연구소의 가을산행계획의 일환으로 15명의 산우회원이 참석했다. 버스는 칠정 휴게소에 잠시 멈추더니 힘겹게 사해고개 길을 어느 덧 넘어 한계령정상(해발920m)을 지나갔다.

이번 산행계획은 오색에서 대청봉으로 오르는 산행이란다. 오색입구엔 내려오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기념 촬영하느라 야단법석들이다. 풋말에 대청봉까지의 거리는 5km라고 적혀있다. 입구에 들어서서는 순간 이제 정말 대청봉엘 가게 되나 생각하니 벌써 가슴이 설레 인다. 오색코스는 짧지만 험준하고 급한 경사가 진 것이 특징이라고 한다.

입구부터 오만한 등산객의 기(氣)라도 잡을 듯 험한 돌무더기 길이 나온다. 앞서사람의 발 뒤굽만 보고가야 되는 급한 산길이었다.

힘겹게 걸어 두어 시간 올라왔으니 목적지까지 얼마나 남았는지 궁금했다.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더 가야하느냐?”고 물었다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힘내세요” 라고 말한다. 한참 더 올라가 다시 물으면 “조금만 더 가시면 됩니다” 라며 똑같은 대답이었다. 모래주머니를 찬듯 다리가 무거워져 앞으로 한발도 내딛기 어려울 정도로 지쳤다. 그러나 이 산행은 내 자신이 정한 것이다. 힘들어도 내가 걸어야지 어느 누구도 대신 할 수 없는 길이다. 힘내서 더 견자 하고...

농업진흥공사에 재직시 산악반일행과 대청봉엘 등반할 기회가 있었다. 서투른 리더(Leader)를 만나 전날 엄청난 고생을 하고 겨우 중청봉까지 갔으나 용기를 못 내고 대청봉을 쳐다만 보고 내려온 일이 있었다. 그리고 40여년이 지나 이번에 재 도전하는 것이라 감회가 남달랐다.

이번 산행을 어렵게 결심한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금년에 74세의 나이로 대청봉을 오를 수 있을 것인지 체력적인 검증이었고, 또 하나는 2004년에 뇌수막 종양 수술을 받고 수년간 고생하고 겨우 회복이 됐는데 신체적으로 감당 할 수 있을지였다. 이 산행으로 다른 회원들에게 누를 끼치면 어떻게 하나하는 염려와 고심을 많이 하였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올려고 내가 왔던가 웃을려고 왔던가?”하는 노래 말이 떠올랐을까. 설악폭포에 오니 계속된 가뭄 때문에 물은 그리 많지는 않았다. 맑고 차가운 물은 목마름과 땀을 씻는 데는 충분했다.

해질 무렵에 염원했던 정상에 도착했다. 그곳엔 요산요수(樂山樂水)라는 글자가 새겨진 바위와 대청봉(해발1,708m)표지석이 있었다.

설악산은 산세가 험준하고 웅장하면서도 그윽한 산악미를 지니고 있어 수려한 금강산과 웅장한 지리산을 합하여 놓은 것 같이 아름다운 산이다. 설악산은 일년 가운데 다섯 달은 눈에 쌓여 있으므로 설악이라 이름이 지어졌다는 설과 동국여지승람에도 한가위(中秋)부터 쌓이기 시작한 눈이 하지(夏至)에 비로소 녹기 때문에 설악이라고 부른다고 기록돼 있다.

설악산은 기상변화가 심하고 강한 바람과 낮은 온도 때문에 눈 잣나무와 눈 주목이 군락을 이뤄 용단처럼 낮게 자라 국립공원 전체와 동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봄의 잔설과 신록, 여름의 울창한 숲과 후박 꽃, 가을의 단풍, 그리고 겨울의 설경으로 가히 극치를 이루며 그야말로 금강산에 버금가는 남한의 명산이다. 정상에서 내려다보는 형형색색의 오색단풍은 그 아름다움이 한 폭의 산수화를 보는듯한 느낌이다.

중청대피소에서 숙박한 일행은 대청봉에 올라가 아침 해맞이를 하고 하산 준비에 분주했다. 중청봉, 소청봉을 지나서 처음 만나는 곳이 천불동계곡이다. 병풍바위와 오련폭포는 천불동계곡의 명소를 이룬다. 조금 내려오면 귀면암이 가파르게 솟아 있다. 바위가 마치 귀신의 얼굴 모양 같다고 하여 이름이 지어졌다고 한다. “천불의 경관을 보지 못하고는 산천의 경관을 이야기하지 말라”는 속설이 있을 정도로 천불동에는 설악의 모든 절경을 한곳에 모아 놓은 듯하다.

양쪽 계곡을 따라 내려오면 비선대에 이른다. 연속된 바위에 폭포를 보는 광경은 흡사 우의(羽衣)자락이 펄럭이는 것 같으며 마고선녀(麻姑仙女)가 이곳에서 하늘로 승천하였다는 전설에 따라 비선대라 하였다고 한다.

9시간에 고달픈 하산 길도 3km 만 내려가면 이번 산행의 종착지인 신흥사이다. 신흥사는 신라

진덕여왕 6년(652년)에 자장율사가 창건하여 향성사로 부르다가 효소왕 10년(701년)에 의상대사가 중건해 선정사로 개칭되었다가 조선 인조 22년(1644년)에 사찰을 중건하고 신흥사로 개명하여 부르게 됐다고 하는 큰 절이다.

금년에 고회를 맞은 최신일 회원이 속초 용궁식당에서 산행을 기념해 신선한 생선회로 맛있는 저녁식사를 마련해주었다. 감사의 말과 고회 축하인사를 드린다. 필자는 “인생수첩”과 “아 목동아” 두곡을 하모니카로 연주하여 즐거운 축하의 장이 되었다.

고 김수환 추기경께서 75세에 설악산 등반을 하셨다는 실례를 들어 우리 산우회도 75세까지 대청봉을 도전 할 수 있도록 건강유지에 함께 노력하는 다짐을 하였다.

이번 산행을 통해 떠나기 전에 우려했던 체력이나 정신적인 문제는 기우에 불과했었다고 생각되었다. 산행에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과정이 있듯이 우리 사회생활에서도 올라가면 영원히 머무를 수 없이 내려오는 때가 있다는 자연의 진리도 새삼 알게 됐다. 힘들어서 대청봉까지 거리를 묻는 나에게 조금만 더 가라는 용기의 메시지를 준 산사람들의 아름다운 배려 또한 잊을 수 없다.

〈원고접수일 2009년 10월 4일〉



▲ 대청봉(1,708m)에서